

# 전북미래학교 실행 학교 12곳 선정

### 모든 교직원 참여 실천적 학습공동체 기반 교육과정 운영 도교육청, 규모 등 고려 학교 1곳당 1000만원 내외 예산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창조미래(별관) 3회의실에서 전북미래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학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2개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 사례를 보급하고, 운영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학교로는 △전주 전주만성초

전주신흥고, 전주중앙여고 △정읍 갑곡초, 수곡초 왕신여중 △진안 마령초 △무주 무주초 △장수 수남초 △고창 고창초, 영선중 △부안 행안초 등이다. 창의적 교육과정 유형으로는 △기초·기본학력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 △미래형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학교급간 연계 교육과정(유/초, 초/중, 중/고 전환기) 등이 있다. 이들 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

는 실천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교육과정 나눔의 날 운영 등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규모 및 실행 과제 등을 고려해 1교당 1,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12개 학교는 전북미래학교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일반 학교의 수업혁신을 도울 것"이라며 "전북미래학교가 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8일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를 찾은 서거석 교육감이 1~2학년 학생 47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 “모든 학생들의 꿈 응원”

### 서거석 교육감, 개교 123주년 기념 전주기전여고 특강

“모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8일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교장 한희영)를 방문해 1~2학년 학생 47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먼저 서 교육감은 '실력을 언급하며, '미래교육은 탄탄한 기초학력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 학습을 정리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며,

"행복한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존중받는 교실"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개교 123주년을 기념하는 학교 축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전북에서 만 고교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지 않아 본인의 역량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다른 학생은 "최근 교육인권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셋 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외국 로스를 시험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이어서 교육감은 "고교 학생들이 3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못 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학생인권 조치가 폐지되거나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로운 도구나 기술이 도입될 때면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 “평화발전·협력 상생, 이미 시대적인 흐름”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한중우호 관계 발전' 주제 우석대 초청특강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초청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8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특강에는 남천현 총장과 애홍가(艾宏家)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 학생 및 교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관소리와 고영 연주, 태권도학과 시범 공연을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18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를 찾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중우호 관계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한중우호 관계 발전'을 주제로 연단에 나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며 "이미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경제무역 교류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국 대학 간에 시행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중의 합작 프로그램은 200개가 넘는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양국 정부와 우석대학교를 포함한 양국 대학 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국 대학 간 시행중인 중의 합작 프로그램 200개 넘어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  
끝으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인적 교류의 글로벌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평화발전과 협력 상생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싱하이밍 대사는 특강 이후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찾아 주요 시설을 참관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경쟁률 11.5대 1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0명 선발에 총 1,834명이 응시에 평균경쟁률 11.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행정직은 일반 92명 선발에 1,345명이 지원해 1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6명 선발에 28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3명 선발에 34명이 지원해 각각 4.3대 1, 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전산직은 7명 선발에 65명(9.3:1), 사서는 5명 선발에 58명(11.2:1) 공업 일반직은 2명 선발에 14명(7:1), 공업 일반직기는 2명 선발에 18명(9:1), 식품위생은 3명 선발에 30명(10:1)이 각각 응시했다.

이어 시설 일반직은 1명 모집에 19명(19:1), 시설 건축은 7명 모집에 33명(4.7:1), 기록연구는 2명 모집에 8명(4:1)이 각각 접수했다. 특히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관리 일반은 9명 선발에 72명(8:1), 운전 일반은 15명 선발에 111명(7.4:1)이 지원했다. 1차 필기시험 장소는 5월 2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한편 필기시험은 6월 10일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17일이다. 이후 면접시험은 8월 4일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8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접수 현황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c.gok.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담당자 직무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봉양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3년 사립학교 시설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북지역 사립중·고 및 특수학교 관계자, 교육지원청 사립학교 담당자 및 시설담당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시설사업 신속 집행 등 정책 추진 방안을 설명·공유함으로써 시설행정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시설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 사립학교 집행지침 안내 △반부패 청렴 교육 △내진보강사업 및 석면안전관리 사항 △교육시설 안전 관련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관련 전달 사항 등이다. 강사진으로는 도교육청 교육시설1담당 각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대학생 멘토 초청 진로멘토링 컨설팅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부안고등학교(교장 김병석)와 양현고등학교(교장 이종현)를 방문해 대학생 멘토 초청 진로멘토링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생 멘토 초청 진로멘토링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날 컨설팅에서 부안고등학교 박진숙 진로진학상담 부장 교사는 "군단위 학교에서 친숙한 선배들과의 만남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양현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장 백운기 교사는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선배 멘토에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 도내 교원단체 '말·말·말'

### 전북교총 “교권 존중 시효”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전북교육인권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의회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하는 조례이니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센터와 교육인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학생과 교원 직위, 보호자 등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그는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 바닥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

센터에 뒤 안정적인 학교운영과 교단의 지도력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사의 지도력이 한 없이 작아져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해 교권의 회복과 더불어 교사의 지도력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며,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사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이 없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의회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 전교조 전북 “졸속 통과 우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4일 의회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졸속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는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교육감이 물러나 조련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고, 만일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질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 의원의 찬성연설 발언 중 "전북교육청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해서... 10회 이상의 협의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과정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질적 교권보호

를 위한 대책이 담긴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육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했다. 조례 내용을 우려하는 여러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현장에서 어느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활동보호조례, 갑질근절조례, 학생인권조례 강화 등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난독증·경계선지능 이해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18일 이틀간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2023년 난독증 및 경계선지능 이해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유·초·중등 희망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현장교사의 난독증 및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도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7일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재석 박사가 강사로 나서 난독증에 대한 이해 및 학급 내에서 난독증 분별 지도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연수 참여자에게는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분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와 느린학습자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 교사들이 평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긴이 검사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8일 연수에는 명지대학교 정하나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정 교수는 경계선지능의 정의, 교실의 경계선지능, 경계선지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편 느린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지능 학생은 IQ 71~84 사이에 속해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 학교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가 낯선 상황에서 이번 연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초등 영어 담당교사 대상 테슬 직무연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 초등영어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수행 참여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3년 초등영어 담당 교사 테슬 직무연수'를 온·오프라인 통합연수로 마련, 전라북도 초등영어 담당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4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올해 1월 전라북도교육청 연구기관 공모에 전북대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실시된다. '테슬 직무연수'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현지 영어 담



당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는 전 과정 영어강의 및 영어능력 향상 훈련을 통한 현장수업의 효과적인 진행과 언어습득 과정, 영어교수법, 문법 및 발음 원리 등에 관한 지식 습득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정은성 기자